

지방자치·국제

또 무산... “미치겠다 F1 지원법”

여야의 정쟁 속에 결국 포뮬러원(F1) 대회 지원법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 3개와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만 상정,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5일까지. 아직 3일이 남아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사일정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끌어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를 불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여당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는 사

국회 22일 미디어관련법 등 4개법안만 상정 통과

여야 극단 대치로 본회의 난망... 9월로 넘어갈 듯

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계획을 갖지 않고 있으며 설사 여당이 본회의를 열자고 해도 야당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된 F1 지원법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 일정이 꽉할 가능성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F1 지원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F1 지원법이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F1 지원법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 통과를 공언했다는 점에서 본회의가 열리기만 한다면 가능성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시간이 부족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F1지원법은 호남의 현안 법안이라는 점에서 본회의가 열리다면 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F1 지원법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자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F1 지원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지원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객 늘어 좋지만...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간강타운(이하 타운)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개원한 지 40일 만에 이용자가 1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타운의 한 달 운영비가 무려 3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매년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의 수익금 중 2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운영비의 3분의 1은 타운 자체

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식당이나 목욕탕 등의 이용비가 원가에 끝나는 1천원인데, 전체 124개 프로그램 중 80%에 달하는 99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나면 빌려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40일 간 타운이 올린 수입은 6천251만 5천원(회원증 수수료 제외)에 불과했으며, 이 중

광주 빛고을노인간타운 운영비 허덕

대부분 무료시설... 기부·기탁 절실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당(3천724만7천원)과 목욕탕(945만원), 수영장(836만6천원) 등으로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이다.

타운 관계자는 “기업이나 단체들의 기부나 기탁, 자원봉사 등이 절실히며, 이는 향후 타운의 안정적인 운영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일부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액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는 최후 수단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무안-석재 가공공장, 장성-전자제품 공장 전남도 180억 규모 투자유치

전남도가 친환경 석재 가공공장 및 전자제품 공장을 이달아 유치하는 등 투자유치에 기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호 도지사와 사암석 무안군수, 이정 성장군수, 도의원, 박선희 삼영 산업(주) 대표이사, 김운석(주)창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삼영산업(주)은 무안 청계면 일원 2만9천200㎡의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자해 최

첨단 석재 가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등에서 원석을 수입해 친환경 적이고 다양한 색상의 상품으로 가공, 국내 및 해외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120명의 신규직원 채용이 예상된다.

또 (주)창영, (주)아이티에스와 이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한 해원케미칼 등 3개 전자업체는 장성 홍릉면 신호리 지역 1만2천600㎡부지에 75억 원을 투자해 합동으로 공장을 짓는다.

/홍행기자 redplane@

천일염 세계 명품화 ‘잰걸음’

전남도사업단, 분쇄기 개발 등 1단계 연구실적 발표

전남지역 특산품인 천일염의 세계 명품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대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사업단은 22일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연구 1단계 수행실적을 발표했다.

전남도와 목포대 사업단은 지난 2007년부터 ‘천일염 명품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1단계 연구를 통해 기업 기술이전 7건, 특히 출원 26건, 기술지원 24건 및 국내외 논문제재 14건 등의 연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천일염 분쇄 및 건조·입자 선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쇄기를 개발, 천일염 식품 제조용 및 식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친환경 소재(플리프로필렌)로 만든 염전 결정지 장판을 개발해 천일염 명품화 및 부가가치 향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천일염 및 혼조 추출물을 이용한 치약 및 가루 제품, 주를개선·항산화·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 목욕용품 등의 피부 미용 제품도 개발했다.

/최권일기자 cki@

500여대 네온 주차장 343㎡(4층), 4층 통합교사실 & OK 카페와 카드 할인 혜택

* 해수경 269-5757

* 해수경 262-0925

* 해수경 251-5080



한여름의 산타클로스 총회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52차 세계 산타클로스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150여명의 산티클로스들이 보트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미국산 쇠고기서 등뼈 발견 수입중단

<광우병 유발물질>

일본 정부는 22일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서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등뼈가 발견된 쇠고기 두 상자는 미국 캔자스 소재 ‘크릭스톤 팝스 프리미엄 비프’(社)의 공장에서 수입한 10t 상당의 쇠고기 810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문제의 쇠고기 상자에는 미국 농무부의 안전 인증서가 없었고 도쿄항 도착 후 동물검역소로부터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국은 미국 농무부에 등뼈가 든 쇠고기 두 상자가 일본으로 선적된 경위

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일본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BSE·소媚면상뇌증) 첫 사례가 발생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2005년 소에서 뇌와 등뼈 등 광우병 유발 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조건으로 수입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남미권 신종 플루 확산

사망자 320명으로 늘어

남미 지역의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1일 320명으로 늘었다.

남미대륙 12개국 가운데 10개국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165명으로 가장 많고 칠레 68명, 브라질 22명, 우루과이 19명, 페루 14명, 파라과이 10명, 콜롬비아 8명, 에콰도르 8명, 볼리비아 5명, 베네수엘라 1명 등 11개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의 사망자 수는 1주일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감염자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으로 치킨을 먹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을 태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시간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중에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미국적 여의자 문제에 언급, “북한이 사면을 통해 그들을 조속히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길 바란다”며 “만약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그 것은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